

# 치.료.사.는 누구인가?

# therapist...



글 | 김정근

일러스트 | 신창우

나는 그동안 주변의 젊은 연구자들과 더불어 독서치료와 관련한 이런저런 활동을 해왔다. '책읽기를 통한 정신치료 연구실'을 구심점으로 삼아 진행하는 체험공부가 중심을 이룬다. 이것은 참여자가 직접 치유서를 '읽고', 느낌을 글로 '쓰고', 다른 참여자와 함께 '말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우리는 이 과정을 상처 입은 치유자(wounded healer)가 되기 위해 자신을 단련하는 공간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상처 입은 치유자란 먼저 치유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여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나는 이 실험에서 힘을 얻어 대학원에서 독서치료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원의 관련 강좌에도 참여하고 있다.

내 주변에서 이런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그 결과로 다른 관련 활동이 파생되어 나왔다. 내부에서 일정 훈련을 거친 사람들이 지역사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새로운 독서치료 모임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대상은 주부, 어린이인 경우도 있고, 학교 선생님 들일 때도 있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 이런 방

법으로 형성된 독서치료 모임이 진행되는 곳은 부산의 남구도서관, 연산도서관, 부산진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경남의 창원도서관과 양산도서관, 울산의 남부도서관이 있다. 나는 잠재적 수요로 미루어 보아 이같은 파생현상은 급속히 확대되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독서치료 활동의 내용은 무엇인가? 콘텐츠를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가 당연히 의문사항으로 떠오른다. 부산에서 최근 시작한 연산도서관의 주부를 위한 독서치료 과정을 사례로 삼아 설명해 보자. 이 과정은



**이 글을 쓴 김경숙은**

도미니칸대학교, 컬럼비아대학교, 토론토대학교에서 문헌정보학과 교육학을 전공, 박사학위를 받았다. 부산대학교 도서관장과 대학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같은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교수이며 '책읽기를 통한 정신치료 연구실'의 지도교수로 있다. 주요 논문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 문제와 독서치료> <공공도서관은 독서치료의 장이 될 수 있는가> <공공도서관의 독서치료 프로그램,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등이 있다.

12주 과정으로 주 1회 2시간씩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담당자는 김경숙 사서이다. 도서관 근무자로서 경력 15년차이다.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성인아이 문제와 독서치료》(한울, 2004)의 저자다. '책읽기를 통한 정신치료 연구실'의 주요 멤버로서 지난 4년간 공부 모임에 참여해 왔다. 그가 작성하여 제출한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회 / 오리엔테이션 및 독서치료의 이해** <김모통이> 비디오자료

**2회 / 상황 유년기의아름** 《상처받은 아이들》 니콜 파브르 지음 | 김주경 옮김 | 동문선 | 2003, 《학대받는 아이들》 이호철 지음 | 보리 | 2001

**3회 / 상황 어른들의 무지와 몰이해** 《마음속의 그림책》 이희경 지음 | 미래M&B | 2000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이훈구 지음 | 이야기 | 2001

**4회 / 상황 남자와 여자** 《아주 작은 차이》 알리스 슈바르처 지음 | 김재희 옮김 | 이프 | 2001 《그 남자가 원하는 여자, 그 여자가 원하는 남자》 김성목 지음 | 김영사 | 2003

**5회 / 상황 가부장 사회** 《나는 제사가 싫다 : 삼십년 동안 가부장제와 맞서 싸운 한 여성작가의 외침》 이하천 지음 | 이프 | 2000 《장남과 그의 아내 : 33쌍과의 인터뷰》 김현주 지음 | 새물결 | 2001

**6회 / 상황 딸과 여자의 자아** 《내 딸이 여자가 될 때 :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가는 딸과 여자들의 44가지 사례 연구》 메리 파이퍼 지음 | 김영재 옮김 | 문학동네 | 1999

**7회 / 상황 사랑** 《사랑을 선택하는 특별한 기준》 김형경 지음 | 푸른숲 | 2003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배리 비셀·조이스 비셀 지음 | 전경자 옮김 | 열린 | 2002

**8회 / 상황 성폭력, 가정폭력** 《나는 인생을 믿는다 : 고통받는 소녀에서 당당한 여성으로》 사미라 벨릴 지음 | 용경식 옮김 | 마음산책 | 2003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정희진 지음 | 또하나의문화 | 2001

**9회 / 상황 부모** 《이런 부모가 자식을 정신병자로 만든다》 김정일 지음 | 박영률출판사 | 2002 《흔들리는 부모》 수잔 포워드 지음 | 한창환 옮김 | 사피엔티아 | 2000

**10회 / 상황 성인아이(adult child)** 《위장된 분노의 치유》 최현주 지음 | 규장 | 1995 《잃어버린 자아의 발견과 치유 : 역기능기증에서 자란 성인아이의 발견과 치유를 위한 안내서》 C.L. 휘트필드 지음 | 김용교·이인출 옮김 | 글샘 | 1995

**11회 / 상황 말기환자와 가족** (영원한 순환 죽음) 비디오자료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 : 인생의 마감 시간에 우리는 무엇이 되어서 만날 것인가》 최화숙 지음 | 월간조선사 | 2002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 미치 앨봄 지음 | 공경희 옮김 | 세종서적 | 1998

**12회 / 마무리와 평가** 《아직도 가야 할 길》 스킷 펙 지음 | 신승철·이종만 옮김 | 열음사 | 2002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정신의학 이야기》 최훈동 지음 | 한울 | 2001

이상이 김경숙 사서가 진행하는 12주 과정의 내용이다. 주로 논픽션 치유서로 구성되어 있고 픽션도 섞여 있다. 김형경의 소설이 그 경우이다. 이 소설은 드물게도 정신분석학의 성과를 대거 도입하고 있어 치유서로 안성맞춤이다. 김경숙 사서는 같은 문서에서 교육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시사점이 많이 담겨 있어 그대로 인용해 본다.

“독서치료(bibliotherapy)는 ‘책읽기를 통한 마음 치료’라고 정의할 수 있다. 상황에 맞는 책읽기를 통하여 마음 어딘가에 잠복해 있는 상처의 근원을 인식하고 그 상처가 완화되거나 치유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 독서치료의 과정이다. 교육과정은 책읽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상황별로 주어진 매체를 읽

고 상호토론을 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다. 우리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열 가지 상황으로 구분하여 상황별로 두 가지 매체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독서를 한 뒤 독서치료의 역동적인 원리, 즉 동일화, 투사, 카타르시스, 통찰을 경험함으로써 독서치료 마인드를 함양한다. 토론식 수업으로 진행해 참여자 모두 상호교감을 통하여 독서치료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므로 수업을 대비한 독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제 이 글의 제목에서 제기한 문제의 핵심으로 접근해 보자. 치료사(therapist)는 누구인가? 위에서 사례로 든 연산도서관의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자. 이 프로그램에서 치료사는 누구인가? 김경숙 사서인가?

나는 김경숙 사서와 같은 위치를 독서치료 모임의 리더(leader), 진행자(facilitator), 인도자(presider), 또는 조정자(coordinator) 정도로 부여하면 어떻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나 자신의 위치도 그 정도로 보면 제일 적절할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나나 김경숙 사서의 위치가 낮아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경험에 비추어보면 이 위치를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거듭 생각해 보아도 나나 김경숙 사서와 같은 위치를 치료사로 보기는 무언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 자꾸만 부담감이 생기고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진정 치료사는 누구인가? ‘치료사는 책이다.’ 이것이 지금 내가 내놓을 수 있는 대답이다. **김경숙**